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의 교환학생

계명대학

교

박윤

아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일본에 왔던 날에는 이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수료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교환유학 생활은 크고 작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일조차, 이곳에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혼자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와서 일본어로 대화하고, 일본어로 공부하며 생활하는 일은 처음에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상마저도 익숙해져, 남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아쉽게 느껴집니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일본어로 말하는 것조차 서툴러, 과연 일본어로 발표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첫 발표를 앞두고는 많은 준비를 했고, 긴장한 나머지 전날 잠을 거의 자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많이 떨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발표를 시작하자 생각보다 차분하게 발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 수업은 교수님께서 특정 주제를 설명해 주신 뒤, 그 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일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은 [일본어 연습 3]였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일본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대해 배우며,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생들과도 교류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일본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일본어 실력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함께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일본어 사정 연습 2]인데 이 수업에서는 일본의 초등학교와 직접 교류할 수 있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며

그들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일본의 학교 급식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던 점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정규 수업 외에도 국제과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기모노 교실, 다도 교실, 꽃꽂이 교실에 참가했는데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는 여행을 다니며 일본 곳곳을 경험했습니다. 이케부쿠로, 신주쿠, 시부야 등 도쿄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물론, 사이타마, 가마쿠라, 홋카이도, 교토, 오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홋카이도는 한국에서 출발할 때보다 비행기 요금이 훨씬 저렴해 교환학생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사이타마의 가와고에입니다. 메인 거리 근처에는 유명한 신사도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았고, 관광객이 비교적 적어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와고에에서는 기모노 체험도 했는데,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12월 31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학교 축제에 참여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끝으로 친전하게 상담해주신 지도 교수인 마츠시마 노리코 교수님과 국제과 담당자님, 각 과목 교수님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제 유학생활을 도와준 튜터 와다씨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공부해서 재미있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고민을 나누고 응원해 준 것은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유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